



과학적인 선진국 제도 부러워



조 병 갑
(한국산업위험관리연구소장)

급년에만 해도 대단히 큰 재난들이 내외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부산의 T방적회사의 화재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재해가 많이 발생했고,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인도 보팔시의 가스누출 사고와 같은 인위적인 사고와 멕시코의 지진 및 할렘비아의 아르매로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적 재해도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시장개방압력과 덩핑관정에 부딪쳐 이미 그 영향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될 국내 기업들이 많음도 주지의 사실이며, 그러한 압력으로 해서 조야의 정가와 산업계에 충격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음도 우리 모두가 알고있는 바다.

이처럼 개인의 작은 상해보부터 기업의 도산과 자연적인 재해에 이르기까지 기업 또는 사회 및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모든 종류의 위해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 그러한 위험들로부터 안정적 발전을 모색해 가고자 하는 것이 위험관리의 본질이다. 따라서 위험관리는 인류의 존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할 수 있고, 홍수를 예견하여 기존의 생

명체를 방주에 실어 멸망의 재난에 대비했던 창세기의 '노아'는 최초의 위험관리자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간에 모두가 의식·무의식 속에서 위험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을 둘러싼 모든 체제가 복잡다양해 짐으로써 본능적인 위험관리 정도로는 도저히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안정적 발전이나 지속이 어려워져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위험관리를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85년이 거의 끝나가는 오늘까지도 국내의 기업은 물론, 위험관리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보험기업들마저도 아직 충분한 인식이 되어 있지 못한 현실은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그러면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위험관리를 어떻게 해가고 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30년대부터 위험관리가 기업에 제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대기업은 1~2명의 위험관리자나 보

험관리자를 채용하고 있다.

특히 1950년도에는 이와 같은 기업의 위험관리자들이 모여 RIMS (Risk and Insurance Management Society, Inc.)를 설립, 5개지부를 발족시킴으로써 초유의 위험관리자협회를 탄생시켰으며, 이 조직은 현재 미국 및 캐나다를 포함해서 70여개의 지부와 3,500여 기업회원을 거느리고 위험관리의 발전을 위해 출판, 교육, 연구 및 상호간의 정보와 의견교환을 위한 각종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RIMS가 주축이 되어 1984년도에는 12개국의 위험관리기관 대표들이 모여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isk and Insurance Association을 설립하였고, 1986년 10월에는 동남아 최초의 RIMS ASIA/PACIFIC CONFERENCE를 싱가포르에 주선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RIMS주관의 국제회의 외에도 국제상당회의연합회나 구라과의 지역연합회에 의한 국제세미나나 지역세미나가 매년 열려오고 있음).

이밖에도 정부차원에서는 이미 기업의 위험관리자를 자격제도화해서 RM54 (Structure of the Risk Management Process), RM55 (Risk Control) 및 RM56 (Risk Financing) 등의 세분화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험을 국가가 실시하되 IIA (Insurance Institute of America)와 RIMS가 주관하고 있으며,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해 13주간의 정규입소교육이나 독학교육을 지도하며, 외국인들의 응시를 위해서 세계 여러나라에 시험장소까지 배려하고 있다.

한편 기업의 위험관리에 대한 재정관계를 살펴보면 1978년도의 통계는 기업수입의 6%를 위험관리비에 충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그 비용의 증가면에서도 기업수익증가율이 13.3%에 불과한데 비해 위험관리비는 17.1%가 증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미국기업들의 위험관리에 대한 노력이 가히 열성적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업들의 활동과 요구를 배경으로 하여 보험기업의 자문기관을 제외하고도 IRMC, ICS 및 IRIA 등 무려 100여개의 RISK 자문조직이 현재 활동하고 있다.

유럽지역을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는 C. T Bowring 보험회사의 계열기관인 Bowring Risk Management Ltd.를 비롯, RRG 및 RMC 등이 교육은 물론 기업들에게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필자는 영국 최초의 종합위험관리교육교재로서 RRG사의 Burnister 회장이 집필한 Practical Risk Management를

“危險管理의 理論과 實務”로 번역 보급하였음).

북구의 스웨덴 같은 경우는 Skandia Risk Ltd.가 엔지니어만도 무려 100여명을 확보하고 기업과 밀착하여 1대 1로 기업을 지도함은 물론 위험의 예방과 개선에 진취적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関西大学을 중심으로 위험관리학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실무차원에서는 三陸商事의 牛場靖彦씨를 비롯 기업의 위험관리자나 관심있는 인사들이 일본위험관리연구회를 1982년도에 설립, 매월 한회도 빠뜨리지 않고 연구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고문헌들을 발간해 오고 있다. 그러나 牛場靖彦씨는 일본의 경우 진정한 의미의 위험관리가 기업에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아직도 그 초기단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상 선진 몇 나라의 실태를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를 잠깐 언급해보기로 하자.

우리의 경우는 연구학회나 연합회와 같은 기구는 물론 없고, 정부나 사회차원으로서 화재, 전기, 가스 또는 안전등 일부 위험부분의 조직이 있으나 종합적인 위험관리조직은 아직 탄생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실태와 기업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82년 필자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한국산업위험관리연구소를 설립하였으나 아직도 기업들의 인식부족으로 초기적인 단계의 활동만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대한손해보험협회가 비록 보험회사차원이라 하더라도 선도적으로 해외인사를 초빙,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은 참으로 고무적이라 하겠고, 또한 몇개의 손해보험회사에 위험관리과가 발족됐거나 발족되고 있음은 그것이 자의길 타의길간에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험관리가 “기업, 사회 및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모든 종류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면 그것이 선진국가들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는 식이 아니라 산업안전을 통한 우리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조속히 활성화의 연구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며, 특히 미국의 시장 개방이나 Dumping 판정같은 유사한 문제들이 위험관리 교재들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연구되고 대책이 논술되었음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감할 수 없다. □